

# ‘오월 그날’의 기억, 예술로 이어지는 연대의 시간

ACC, 18-27일 ACC '2026 오월문화주간' 운영

5·18 다룬 창·제작 공연부터 전시, 다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 '민주·인권·평화'...함께 호흡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공감대 확산

5월 광주가 민주·인권·평화가 깃든 문화예술로 빛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18일부터 27일까지 ACC 일대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2026 ACC 오월문화주간'을 운영한다.

'ACC 오월문화주간'은 ACC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예술로 풀어내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월 정신을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앞서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이 지난 14-17일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랐다. 이 작품은 도청 철장이 노인의 기억을 따라간다. 1980년 전남 도청 벽에 분노와 열망의 글씨를 남기는 아들과 다시 흰 칠로 이를 덮어야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비극적인 현대사 속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또 오월문화주간 이후에도 ACC와 서

울국제공연예술제가 공동 창작한 오페라극 '세 번째 전쟁'이 오는 29-30일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오른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의 완성작이다. 마법이 존재하는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세 국가의 전쟁을 서로 다른 서사로 풀어내며 진실과 거짓, 사실의 경계가 흔들리는 순간들을 다룬다. 작가 겸 연출가 박본의 대본과 작곡가 벤 뢰슬러의 음악이 결합해 강렬한 무대를 선보인다.

복합전시관에서는 '침묵, 그 고요한 외침—폴란드 포스터'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1950-60년대 폴란드 포스터 학파를 집중 조명하며, 정치적 억압과 검열 속에서도 표현을 이어간 시각예술의 힘을 보여준다. ACC는 폴란드의 문화적 저항 정신이 5·18민주화운동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오월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ACC 필름앤비디오 '아시아의 장치들' 전시에서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장민승 작가의 '둥글고 둥글게 익스펜디드 에디션'은 5·18민주화운동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

까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곡점을 영상과 음악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홍진현의 '멜팅 아이스크림'은 민주화운동 사진 필름의 복원 과정에서 출발한 다큐멘터리 작업이다. 전시장에서는 영상 작품과 함께 사진 연작 '멜팅 아이스크림—인텍스'도 함께 선보인다. 녹아내린 필름 이미지와 민주화운동, 노동권 투쟁 장면들이 교차하며 기록 속에서 드러나지 못한 존재들을 돌아보게 한다.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도 정식 개관한다.

1980년 당시 모습을 바탕으로 복원된 공간은 5·18민주화운동의 서사와 재현, 교육, 추모 기능을 담은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역사교육프로그램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오월이야기퍼즐'을 비롯해 'ACC 민주·인권·평화 영상(+AI) 콘텐츠 공모전', 'ACC 평화이야기 보관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ACC 오월문화주간'



장민승작 '둥글고 둥글게 익스펜디드 에디션'



홍진현작 '멜팅 아이스크림'

은 광주의 오월이 특정 지역과 시대에 머무는 역사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가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예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자연·감각·기억 따라 떠나는 정원 산책

27일까지 조선대 개교 80주년 특별전

조선대학교 미술관(관장 김일태)이 오는 27일까지 개교 80주년 기념 특별전 '정원을 거닐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장미축제 기간과 맞물려 캠퍼스를 찾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서 감각과 사유를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에는 작가 13명이 참여해 서양화와 한국화,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장르 작품 33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자연을 감각과 기억, 존재에 대한 사유의 대상으로 확장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

전시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심상의 정원'은 감각과 기억을 통해 내면의 풍경을 확장하며, '감각의 정원'은 매체와 환경 속 인식의 변화를 탐색한다. '은유의 정원'에서는 자연을 통해 삶과 존재를 성찰하는 작업들을 만날 수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김수진의 '연주된 시간의 기록', 양홍길의 '낙화유수', 박상화의 '포스트네이처-광주' 등이 소개된다. 설박의 수목 작업과 박아론의 설치 작업을 비롯해 김단



박상화작 '포스트네이처-광주'

바·김명우·김미미·김제민·송지윤·조선아 등의 회화·설치·미디어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김일태 관장은 "이번 전시는 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선을 통해 관람객의 감수성을 환기하고,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경험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며 "장미축제 기간과 연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미술관을 찾고 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문인화 부문 김민철 '매화' 대상

제39회 광주미술대전

올해 광주미술대전 대상 수상자로 전통미술 분야 노영문, 한국화 선정미, 문인화 김민철, 서예한문 유두석씨가 선정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미술협회가 주관한 제39회 광주미술대전 입상작이 지난 14일 발표됐다.

올해 미술대전에는 총 14개 분야에서 1천507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대상 4점을 포함해 총 814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규모는 대상 4명, 최우수상 8명, 우수상 36명, 특선 241명, 입선 525명이다.

대상 수상작은 전통미술 분야 노영문의 '수월 관음도', 한국화 분야 선정미의 '지붕 위의 시간', 문인화 분야 김민철의 '매화', 서예한문 분야 유두석의 '백운거사 시'다.

올해 심사는 작품의 창의성과 예술적 완성도, 작가 고유의 조형 언어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서예·문인화·캘리그래피 부문은 지난 2일 특선 이상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 휘호를 실시해 작품의 진정성과 작가 역량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오건규 심사위원장은 "올해 출품작들은 신진 작가들의 실험정신과 중견 작가들의 깊이 있는 예술적 성찰이 조화를 이뤘다"며 "광주 미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대전은 지역 미술계의 신진 작가 발굴과 창작 활성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성 있는 조형 실험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출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



김민철작 '매화'

시는 28일부터 2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묘 이강 · 개강**

가족묘 조성 / 개강 / 묘지이강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강 전문 ☎ 문의) 062-464-3466